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7호 [루체 제25846호] 주제 106 (2017)년 12월 3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에서 중시하는 다이아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태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인 홍영길동지, 조용원동지, 유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며 새로운 다이아생산 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에서 절실히 바라는 문제를 풀고 나에게 큰 힘을 준 공장로동계급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고, 정말 큰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뜨겁게 배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1968년 1월에 조성한 압록강다이아공장은 주체적다이아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적다이아공업발전의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공장터전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나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압록강다이아공장은 지난 기간 자립적다이아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수많은 각종 다이아들을 광량 생산해내어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거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1년



으며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발휘해나갈 때 이 세상 침범 못할 요새가 없고 쫓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뜻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해 주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압록강다이아공장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역에서 승리적전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넣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다이아생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다이아공업발전추세에 맞게 생산공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자재보장대책을 원만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지식형의 인간들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4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에 오시었던 역사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압록강다이아공장을 언제나 깊이 관심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생애의 마지막 해에도 공장을 찾아주시고 로동계급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며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제위가 어머없는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다이아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다이아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시기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각종 다이아들과 새로 개발한 란도로케트자행발사대자의 대형다이아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1월대사변》준비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던 지난 9월 압록강다이아공장에 우리 식 9축자행발사대자의 대형다이아를 무조건 개발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천무적과업을 피륙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자력경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부단치는 예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파란만장한 생산돌격전을 벌여 당이 준 명령을 빛나게 완철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열의가 비껴있는 대형다이아들을 하나하나 솟아만져보시며 요란하다고, 불수룩 멋있고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무들이 대형다이아개발투를 끝냈다는 보고

를 받은 그날부터 한시바빠 공장에 와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대형투쟁기재생산의 주체화, 국산화실현에서 큰 몫을 한 이 공장 로동계급에게 진실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 있던 대형다이아생산공정을 수입설비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보장하여 짧은 기간에 혁명적으로 새로 꾸리고 주요물리기계적성질이 수입산보다 훨씬 우수한 새형의 대형다이아를 훌륭히 만들어낸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투쟁본파와 일본새에서 류달리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당중앙의 이름으로 깊이 머리속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압록강다이아공장의 로동계급은 올해 계획된 각종 다이아생산투쟁과 새로 개발한 대형다이아생산투쟁을 통하여 당의 결심은 골과락이며 승리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자동차를 비롯한 투쟁기재들을 자체로 생산하는것과 함께 그에 필요한 각종 다이아를 우리 힘과 기술,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낼수 높여나가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압록강다이아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다이아생산기기로 전면시킴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그르히 갖추며 공장안팎을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